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일반고 진학집단의 성취 및 학업풍토 변화추이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일반고 진학집단의 성취 및 학업풍토 변화추이

2008년 이후 추진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확립된 현재의 고교 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고 위기의 문제는 학습풍토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권을 가진 고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게 되면 일반고에서는 학습의 구심점이 되어 학습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학생이 급감하고, 이러한 학습의 구심점 상실로 인해 점차 면학분위기가 악화되며, 이로 인해 교사나 학생들의 교수-학습 열의 또한 약화되는 현상이 일반고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이다(김홍주 외,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고의 학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2015년의 5개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자료 중 중3-고2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고 공동화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1) 2010년 이후 일반고의 입학생 성취수준은 어떻게 변화했고, 2) 학업풍토의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3) 일반고 입학자원 구성의 변화가 학업풍토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5년 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자료중 일반고 자료에 해당 학생의 2년 전 즉, 중3 성취도 평가결과를 결합한 자료로, 입학성적과 학업풍토를 종속 변수로 살펴보았다. 중3 성적을 해당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성적으로 간주하였으며, 국어, 수학, 영어성취도의 척도점수를 백분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¹⁾. 학업 풍토는 학교생활에 대한 설문 중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신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한다’의 두 문항에 대한 4점 Likert 척도 응답결과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전술한 일반고의 입학성적 및 학업풍토 연도별 변화양상을 지역, 학생 및 학생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¹⁾ 백분위 변환은 고등학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일반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진학생만을 대상으로 백분위를 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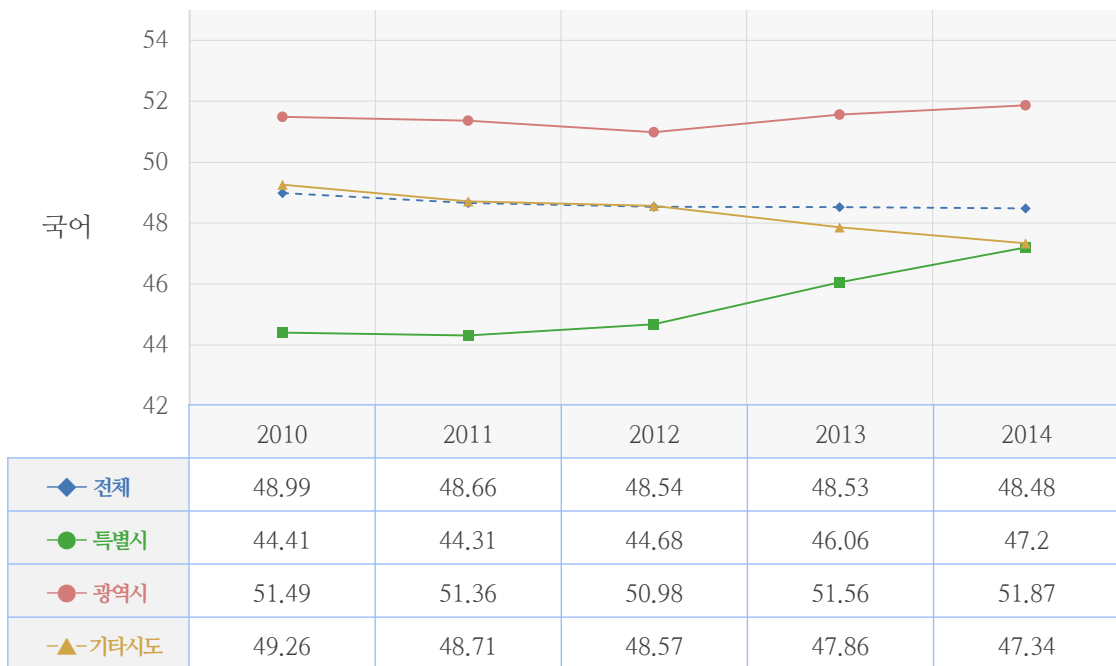
〈표 1〉 입학연도별 분석대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학생수(학교수)	
전체	416,796 (1,326)	412,539 (1,329)	407,559 (1,382)	395,356 (1,391)	385,472 (1,455)					
특별시	74,243 (176)	72,076 (177)	70,197 (180)	66,023 (181)	56,288 (183)					
광역시	111,618 (323)	111,708 (320)	107,904 (329)	103,482 (329)	98,613 (330)					
기타시도	230,935 (827)	228,755 (832)	229,458 (873)	225,851 (881)	230,571 (942)					

교과목별 일반고 입학생 성취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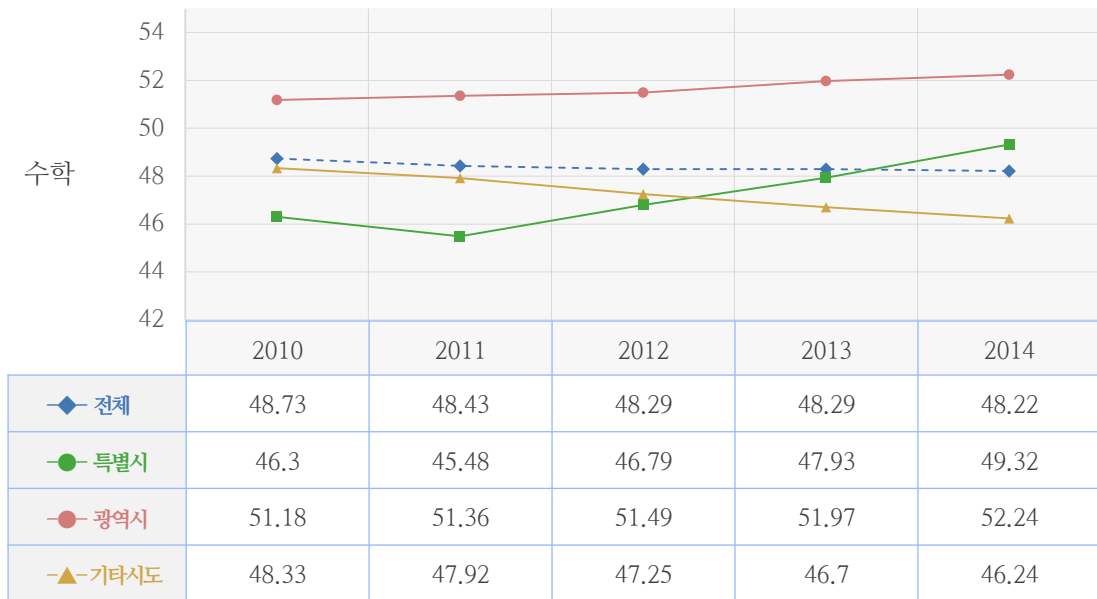
국어

2010~2014년에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백분위는 광역시가 매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시의 경우 광역시 및 기타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입학생의 경우 기타시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시도의 경우 초기에 특별시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입학생의 성취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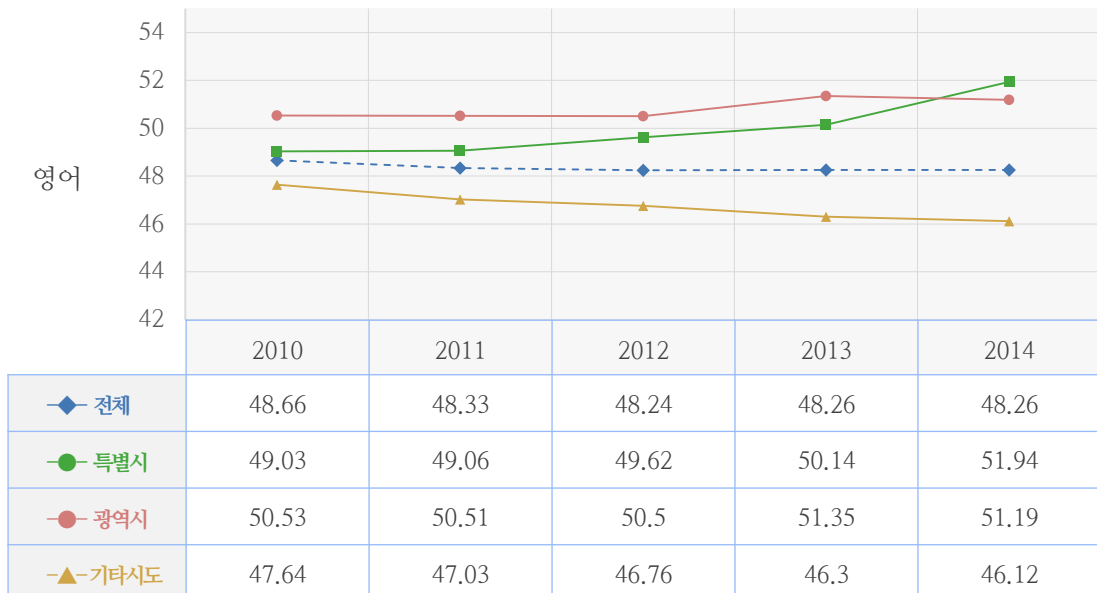
수학

수학의 경우 2010~2014년에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백분위는 광역시가 매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었다. 특별시의 경우 2010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입학생의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상승폭이 가장 커서 2013년부터는 기타시도와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기타시도 일반고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 일반고 공동화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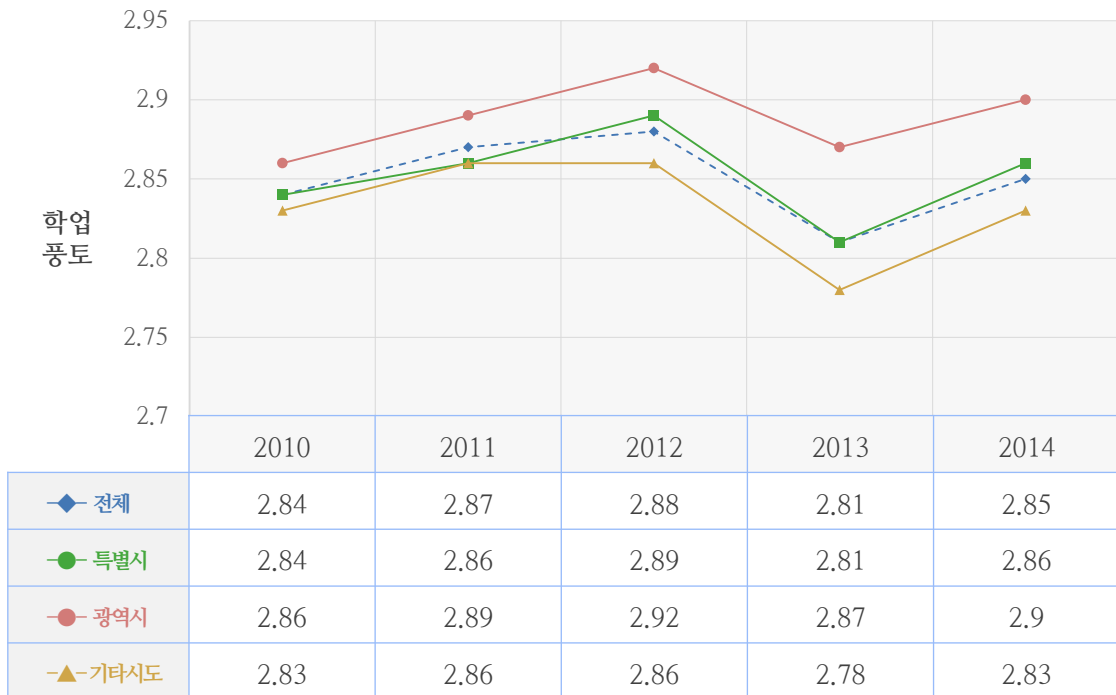
영어

영어의 경우 2010년 광역시-특별시-기타시도의 순이었으나 특별시의 입학자원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2014년에는 광역시와 특별시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기타시도의 경우 초기에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입학자원 수준이 하락하면서 광역시 및 특별시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반고 학업풍토 추이

2010~2014년에 일반고에 입학한 학생들이 고2 시점에서 인식한 학업풍토는 광역시가 가장 높았고, 특별시-기타시도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학업풍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다가 2013년에 하락한 이후 다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타시도의 경우 2010-2012의 향상폭은 크지 않았으나 2013의 하락폭이 커서 전반적으로 하락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고 입학생 성취도 및 학업풍토 추이 영향요인

전술한 각 교과목의 변화추이 및 학업풍토에 대해 3수준 유사종단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입학생 성취도 및 고2시점에서의 학업풍토 인식의 수준 및 변화율에 대한 학생 및 학교성별, 지역별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입학성적 변화추이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변인	국어		수학		영어		학업풍토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생수준									
여학생	10.967 ***	0.128	-0.422 ***	0.050	8.097 ***	0.049	0.081 ***	0.001	
학교수준									
초기 상태	절편	45.263 ***	0.632	49.167 ***	0.693	43.194 ***	0.694	2.476 ***	0.019
	공학	-8.523 ***	0.673	-9.702 ***	0.781	-8.024 ***	0.782	-0.052 ***	0.008
	특별시	-4.397 ***	0.739	-1.100	1.165	2.988 *	1.168	0.016	0.012
	광역시	2.741 ***	0.705	4.322 ***	0.936	4.777 ***	0.937	-0.017	0.010
변화율	절편	-0.284 **	0.097	-0.202 *	0.102	-0.012	0.096	-0.001	0.002
	공학	0.343 **	0.107	0.311 **	0.116	0.143	0.109	-0.001	0.002
	특별시	0.838 ***	0.107	0.875 ***	0.168	0.600 ***	0.158	-0.009 **	0.003
	광역시	0.309 **	0.113	0.462 **	0.137	0.231	0.129	0.003	0.002
입학성적평균							0.010 ***	0.000	
입학성적 표준편차							-0.005 ***	0.001	
학교간분산									
초기상태	149.404 ***		197.203 ***		198.576 ***		0.015 ***		
변화율	2.816 ***		3.210 ***		2.806 ***		0.000 ***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국어와 영어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백분위가 11점(국어), 8점(영어)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학의 경우 남학생의 입학성적이 높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백분위 0.42). 성별이 동일할 경우 모든 교과에서 단성학교가 공학에 비해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백분위 9.0(영어)에서 9.7(수학) 정도로 큰 수준이었다.

입학생의 성취수준은 지역별로는 모든 교과에서 광역시가 특별시 및 기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별시와 기타 시도의 경우 국어는 기타 시도가, 영어는 특별시가 높은 수준이었다. 입학생 자원의 성취수준은 국어와 수학에서 기타 시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별시의 경우 광역시보다 입학생의 성취수준이 낮았지만 입학자원의 수준이 향상되어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2 시점에서 학생들이 인식한 학업풍토의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학교에 대한 학업풍토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성별일 경우에는 단성학교보다 공학의 학업풍토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단성학교 여학생-공학 여학생-단성학교 남학생-공학 남학생의 순으로 학업풍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학업풍토의 변화율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는 선형적 향상 혹은 악화의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타시도와 비교할 때 특별시의 학업풍토 하락정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시 일반고의 교수-학습열의가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의 학업풍토는 입학성적 수준 및 입학자원의 성취도 측면에서의 다양성(표준편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풍토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동시에 학업성적이 비슷하여 동질적인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을수록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학업풍토가 높았다.

논의 및 제언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2010-2014년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입학성적 변화추이 및 이들이 고2시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학교의 학습풍토의 변화추이를 지역 및 학교 성별로 살펴보았다. 본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일반고의 위기현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논의, 제언하고자 한다.

일반고의 입학성적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본 분석의 결과가 이러한 현상이 지난 5년간 더욱 심화 혹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즉, 고교 다양화 초기부터 선발형 고등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는 나타나고 있으며, 자사고와 특목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확대, 중학교 성취평가제에 의한 내신 반영, 1단계 선발에서의 성적 제한 폐지와 100% 추첨 선발, 대학에서의 학생부 교과전형에 따른 선발형 고등학교 내신 불리의 문제 등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다양한 선발정책 개선과 일반고 유인요소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수학생 선점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선발형 고등학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선발방식의 개선 만으로 일반고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즉, 현재의 전-후기 선발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고 유인책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적 접근을 통한 일반고 공동화 현상의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울지역 일반고의 학업풍토 혹은 면학 열의 상실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학성 성취도가 뚜렷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없음에도 학업에 대한 열의가 하락해가고 있는 현상의 근원에는 선발형 고등학교와 일반고 간 교육여건 차이로 인한 교사 및 학생집단의 의욕 상실 및 언론 등을 통한 대입에서의 일반고 불리에 대한 불안감 강화 등으로 인한 동기 저하의 누적 등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입제도 개혁과 더불어 교사의 평가권 강화와 표준화되고 투명한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방안 정착 등과 같은 중-단기적

관점에서 일반고의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입전형의 개선, 일반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교육재정 집행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규모를 막론하고 일반고 입학생들의 입학성적 표준편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반고내 학력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반고 내의 학업성취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표준편차 단위로 측정된 이러한 학교내 학력격차의 이질성은 학업풍토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고의 교육여건 및 현재의 교수-학습방식이 학교내 학력격차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학급당 학생 수, 교원당 학생 수, 컴퓨터 1대 당 이용 학생 수 등의 양적 지표에서 특목고와 대비한 일반고의 열악함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김홍주 외, 2013). 실제로 비슷한 성취수준의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서의 수업과 비교하여 다양한 성취수준의 학생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에 더 많은 교수자원의 투입과 정교한 교수설계가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에 대응하는 수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 운영의 자율권 측면에서도 선발형 고등학교와 일반고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상쇄시키고 교육적 정의를 확보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 및 학교 성별과 관련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의 학업풍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학보다 단성학교의 학업풍토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업태도와 선호교과 등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고(정해숙, 유진은, 김미윤, 2009), 이러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 차이가 존재하는 남녀학생을 동시에 수용하는 공학은 단성학교에 비해 교육시설,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준엽, 박종석, 2014; 이해영, 2011). 학교운영 측면에서 공학과 단성학교의 학교문화, 학생간 및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방식 등에 서의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분석에 바탕 하여 혼성학급에 적절한 차별화된 수업 및 생활지도 방법 개발, 학교문화와 성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7년 개최한 『제9회 국가단위 평가 자료 분석 및 맞춤형 학력진단검사 활용 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한 다음 논문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김준엽, 김진희(2017).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일반고의 학업풍토 및 입학생 성취수준 변화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KICE 세미나자료집. ORM 2017-91.